

선행화학요법으로 원격전이의 관해 후 위절제를 시행한 원격전이를 동반한 위암 1예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백병원 한국위암센터, ¹혈액종양내과, ²병리학교실

김두원 · 서병조 · 유항중 · 김준희¹ · 이혜경² · 김진복

전 세계적으로 위암의 발생빈도와 사망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흔한 암으로 중요한 사망 원인 중 하나이다. 특히, 진행성 위암의 경우에는 아직도 예후가 불량하며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는 원격전이, 림프절 전이, 불완전한 수술절제 등이 있다. 선행화학요법은 수술 전에 화학요법을 시행하여 종양의 크기를 줄인 다음 수술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이는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 위암에서 병소의 국소적인 종양을 감소시켜 절제율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혈행성 및 복막파종 등 각종 원격전이를 동반한 위암에서의 선행화학요법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원에서 폐전이 및 좌측 쇄골상부 림프절 전이가 있는 환자에서 선행화학요법 시행 후 원격전이 부위의 완전 관해 후 위전절제술을 시행한 1예를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47세 여자환자로 이학적 검사상 좌측 쇄골상부 림프절이 만져지고 흉부 방사선 소견 상 다발성 폐전이를 동반한 진행성위암으로 진단 받았다. 술 전 항암요법으로서 Taxotere, CDDP와 5-FU를 투여하였다. 항암화학요법 4회 실시 후 좌측 쇄골상부 림프절과 흉부 방사선 소견 상 보이던 다발성 폐전이가 사라졌고, 복부 CT 소견 상 위병변의 크기의 감소를 보였다. 이에 저자들은 위전절제술과 D2 림프절 광청술을 시행하였다. 병리조직검사상 위암은 위근육층까지 도달했으며 62개의 절제된 림프절 중 42개에서 암세포가 발견되었다. 환자는 수술 후 2회의 항암요법을 추가로 시행 받은 후 퇴원하였다.

중심 단어: 위암, 좌측 쇄골상부 림프절 전이, 폐전이, 선행화학요법

서 론

전 세계적으로 위암의 발생빈도와 사망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흔한 암으로 중요한 사망 원인 중 하나이다.(1,2) 특히, 진행성 위암의 경우에는 아직도 예

후가 불량하며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는 원격전이, 림프절 전이, 불완전한 수술절제 등이 있다.(3)

선행화학요법은 수술 전에 화학요법을 시행하여 종양의 크기를 줄인 다음 수술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이는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 위암에서 병소의 국소적인 종양을 감소시켜 절제율이 증가하는 경우는 많이 있었다.(3,4) 그러나, 혈행성 및 복막파종 등 각종 원격전이를 동반한 위암에서의 선행화학요법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원에서 폐전이 및 좌골상부 림프절 전이가 있는 환자에서 선행화학요법 시행 후 원격전이 부위의 완전 관해 후 위전절제술을 시행한 1예를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환 자: 47세 여자

주 소: 기침 및 소화불량

과거력 및 가족력: 특이 소견 없음.

현병력: 상기 주소로 개인병원에서 진행성 위암으로 진단받고 수술받기 위해 본원으로 전원 되었다.

이학적 소견: 복부에 촉진 되는 종괴가 없었고, 두경부 촉진에서 좌측 쇄골상부 림프절이 촉진되었고, 세침 흡입 조직검사상 전이성 위선암으로 나타났다.

임상병리학적 소견: 말초 혈액검사항 Hb 9.8 g/dl, Hct 30vol%, WBC 9,150/ μ l, PLT 315,000/ μ l이었고 종양 표지자 검사상 CA19-9는 254.3U/ml로 증가되어 있었다.

방사선학적 소견: 흉부 사진상 폐전이 소견이 보였으며 (Fig. 1), 흉부 전산화 단층 촬영에서 폐전이 및 쇄골상부 림프절 전이 소견이 보였고(Fig. 2, 3), 복부 전산화단층 촬영상 다발성 림프절 전이를 동반한 진행성 위암 소견이 보였다.

위 내시경 소견: 위하부 체부의 소만부와 전벽을 침범하고 있는 거대 침윤성 궤양부가 관찰되며 이는 전정부의 소만부와 전벽 대부분 까지 미치고 있었다.

수술 소견: 복강경으로 복막전이 및 간전이가 없는 것 확인 후 상복부 정중절개하여 개복하였고 위 전절제술 및 림프절 광청술(D2 dissection)을 시행하였다. 12번 림프절이 커져있어 동결 절편 생검하였으나 음성으로 나타났다.

책임저자 : 서병조, 서울시 중구 저동 2가 85번지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한국위암센터, 100-032
Tel: 02-2270-0247, Fax: 02-2272-8307
E-mail: oltx62@hotmail.com

접수일 : 2004년 8월 17일, 게재승인일 : 2004년 10월 18일



Fig. 1. Chest roentgenograms taken on admission (A) and after preoperative chemotherapy (B). Most of the metastatic lesions disappeared after chemotherap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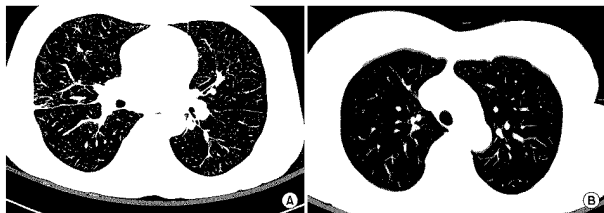


Fig. 2. Chest computed tomography scan shows extensive lymphangitic metastatic spreads through both whole lung fields (A), metastatic lesions disappeared after chemotherapy (B).

병리 조직학적 소견: 절제된 위에서는 유문부 소만을 따라 중심부에 궤양을 동반한 4.5×3.5 cm 크기의 진행성 암종이 있었고(Fig. 4), 이는 고유근층까지 침범하였고 절제된 60개의 림프절 중 42개에서 전이가 관찰되어 4기 위암(AJCC, 1997 분류법)으로 진단되었다.

항암 화학 요법: 상기환자 2003년 12월 13일부터 Taxotere, CDDP 5-FU 로 선행화학요법 4주기를 3주 간격으로 시행하였고, 수술 후 같은 용법으로 2주기를 시행한 후 현재 항암요법 종료한 상태이다. 참고로 1주기는 3일로 하고 1일째 Taxotere 120 mg, 2~3일째 CDDP 40 mg, 5-FU 1,500 mg 을 정주하였다.

고 찰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위암에 대한 선행화학요법의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논문에서 보고된 바 있으나, 원격전이가 동반된 위암 환자에 대해서는 드물게 보고되고 있다. 기존의 원격전이가 있는 위암 환자에 있어서는 위절제술보다는 고식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치료원칙으로 알려져 있다.(1,2)

그러나, 최근에는 선행화학요법에 의한 관제 후 위절제술을 시행한 여러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Nashimoto 등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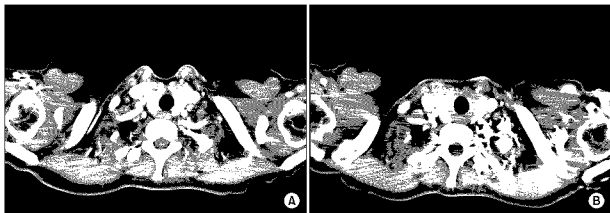


Fig. 3. Chest computed tomography scan shows metastatic adenopathy at Lt. supraclavicular fossa (A). Most of the metastatic lesions disappeared after chemotherapy (B).



Fig. 4. Macroscopic findings of resected gastric specimen. A 4×3 cm ulceroinfiltrative lesion is present in antrum and angle.

원격전이와 동반된 18명의 환자에게 5-fluoruracil, leucovorin, cisplatin을 투여한 후 수술을 시행하여 치료 반응율을 원발 병변이 47.6%, 대동맥 주위 림프절이 57.1%, 간전이 40.0%, 복강 내 파종이 11.1%임을 보고하였다.(3) Yano 등은 33명의 환자에게 선행화학요법을 시행하여 24.2%의 반응율을 보였으며 이 중 14명이 수술을 시행하였고 8명에서 완전 절제를 시행하였다.(4) 정 등의 보고에 의하면 선행화학요법에 의해 원격전이가 있는 15명의 환자 중 완전 관해

를 보인 2예에서 각각 4개월, 26개월간 생존하였고, 부분 관해가 온 10예에서 평균 37.7개월(2.6~56.1)간 생존하여 불변(11.7개월, 17.9개월)과 진행(0.9개월)에 비해 생존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P < 0.01$) 수술시 완전 절제를 시행한 경우 평균 44.1개월 생존하였고, 유관적 불완전 절제를 시행한 경우 9.8개월 생존하여 완전절제 여부 또한 생존 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고 ($P < 0.05$) 보고하였다.(1) 선행화학요법에 대한 phase II 연구에서 치료 반응이 있는 환자군에서 치료반응이 없는 환자군보다 예후가 좋았으며 특히 완전절제를 행한 환자에서 더욱 예후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선행화학요법에 반응이 좋은 경우라도 1~2년 안에 재발이 흔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이유는 화학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작은 수의 중앙 세포가 생존하여 증식하기 때문이다.(6,9,10) 본 증례의 경우 선행화학요법 후 원격전이 부위의 완전 관해 소견이 보이고 수술시 완전 위전절제술을 시행한 경우로 수술 후 화학요법을 2주기 더 시행 후 현재 중요한 상태로 지금까지 재발소견 없이 지내며 계속 추적 관찰 중에 있다. 향후 원격 전이를 동반한 위암환자에서 선행화학요법의 일차적 의의를 더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REFERENCES

1. The role of preoperative chemotherapy in patients with inoperable metastatic or locally advanced gastric cancer. J Korean Gastric Cancer Assoc 2004;3:7-14.
2. Korean Gastric Cancer Association. Nationwide gastric cancer report in Korea. J Korean Gastric Cancer Assoc 2002;2:105-114.
3. Nashimoto A, Yabusaki H, Tanaka O, Sasaki J, Akiyama N. Neoadjuvant chemotherapy in advanced gastric cancer with

- non-curative factors: a phase II study with 5-fluorouracil, leucovorin, and cisplatin. *Gastric Cancer* 1999;2:57-63.
4. Yano M, Shiozaki T, Inoue M, et al. Neoadjuvant chemotherapy followed by salvage surgery: effect on survival of patients with primary noncurative gastric cancer. *World J Surg* 2002;26:1155-1159.
 5. Kim JP, Lee JH, Kim SJ, Yu HJ, Yang HK. Clinopathologic characteristics and prognostic factors in 10,783 patients with gastric cancer. *Gastric Cancer* 1998;1:125-133.
 6. Nozawa H, Sakikawa T, Isukui H, et al. Gastric cancer with Virchow's and multiple lung metastases showing a remarkable response to preoperative chemotherapy; a report of case *Surg. Today* 2001;31:340-345.
 7. Ajani JA, Mayer RJ, Ota DM, et al. Preoperative and postoperative combination chemotherapy for potentially resectable gastric cancer. *J Natl Cancer Inst* 1993;72:2089-2097.
 8. Leichman L, Silberman H, Leichman CG, et al. Preoperative systemic chemotherapy followed by adjuvant postoperative intraperitoneal therapy for gastric cancer. *J Clin Oncol* 1992; 10:1933-1942.
 9. Sakata Y, Okamura T, Kurimoto H, Ono K, Fuku A. A case of advanced gastric cancer with lung and liver metastasis treated by CDDP and 5-FU (in Japanese with English abstract). *Gan To Kagaku Ryoho* 1996;23:627-630.
 10. Hashiya Y, Watahiki Y, Kosaka A. Effect of combination chemotherapy with mitomycin C and cisplatin on advanced gastric carcinoma (in Japanese with English abstract). *Gan To Kagaku Ryoho* 1999;26:145-148.

= Abstract =

A Case of Advanced Gastric Cancer with Virchow's Node and Lung Metastasis Successfully Resected after Combined Chemotherapy of Taxotere, CDDP, and 5-FU

Doo-Won Kim, M.D., Byoung-Jo Suh, M.D., Hang-Jong Yu, M.D., Jun-Hee Kim, M.D.¹, Hye-Kyung Lee, M.D.² and Jin-Pok Kim, M.D.

Korea Gastric Cancer Center, and Departments of ¹Oncology and ²Pathology, Seoul Paik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Inje University, Seoul, Korea

We report a case of advanced gastric cancer with Virchow's node and lung metastasis that responded remarkably to preoperative chemotherapy. A 47-year-old female patient was diagnosed as having incurable advanced gastric cancer with Virchow's node and multiple lung metastasis. Preoperative chemotherapy with Taxotere, CDDP and 5FU was carried out. After four courses of the regimen, the Virchow's node and the lung metastasis had disappeared, and a marked reduction of the gastric lesion was observed on the CT scan. Consequently, the patient underwent a total gastrectomy with D2 lymph node dissection. On histopathological examination, cancer cells were found to have infiltrated up to the muscle layer of the gastric wall, and 42 out of 60 resected lymph nodes were found to be metastatic. The patient received another two courses of chemotherapy after the operation. (*J Korean Gastric Cancer Assoc* 2004;4:282-285)

Key Words: Gastric cancer, Lung metastasis, Preoperative chemotherapy